

고용노동부는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- 12.30.(화) MBC뉴스, “분란 만들지 마”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막힌 쿠팡 부실심사 의혹 수사’ 보도 관련

○ 쿠팡 상설특검팀이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. 고용노동부 내부에서도 쿠팡관련 수사방해 정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했다. (부천지청)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하자 지청장이 왜 ‘분란’을 만드냐며 반대하고 나섭니다.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'24년에 있었던 쿠팡조사와 관련하여, 당시 쿠팡사건 담당 감독관의 감사 요청과* 장관의 특별 지시로 해당 기관장과 부서장 등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('25.11.10~12.12)하였고,

* 감사요청 사안: 1) 압수수색 정보 외부 유출, 2) 압수수색 허위 보고

- 언론보도에서 논란을 야기한 김○○지청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임
- 아울러, 감사 결과와 감사자료 일체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, 특검 수사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

담당 부서	감사관담당관 감사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오태웅 (044-202-7801)
		담당자	서기관	박수호 (044-202-7803)